신석정 시집 미수록시의 시정신

최호진

– 목차 –

Ⅰ. 서 론
Ⅱ. 식민지 시기의 우회적 페르소나
Ⅲ. 남북 이데올로기의 주체적 시대정신
Ⅳ. 반독재와 통일을 위한 저항정신
Ⅵ. 결 론

|국문초록|

신석정(1907~1974)은 50여 년 동안 시집 6권을 남겼다. 그동안 신석정 시문학 연구는 초기시집 『촛불』(1939)에 치중한 '목가적' 이란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페르소나가 필요했던 시인의 현실의식을 가리는 역할을 해왔다. 신석정의 시집 미수록시를 연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법칙과 규제' 뒤에 가려진 그의 현실참여의식을 밝히는 작업이다. 오랫동안 목가적 유토피아란 이름 아래 가려졌던 신석정의 시정신이 초기시는 물론 중·후기에도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현실과 길항관계 때문에 싣지 못했던 미수록시들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집에 미수록된 시는 290여 편으로 수록된 시 330여 편과 비교했을 때 그 분량이나 의미면에서 신석정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데 중요하다. 이에 시집 미수록시 중 시대상황과의 길항관계로 삭제당했거나 시인 스스로 검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들에 주목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외되고 침묵당한 시가 시인의 시정신을 더 잘 드러낸다는 판단에서이다

습작 무렵의 「어머니! 그 염소가 웨……」의 염소는 전원적 염소이자 식민지 현실을 환기시키는 염소다. 이 작품으로 신석정은 목가적 음모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소년의 순진성을 발견하고 초기시들에까지 목가를 덧입힌다. 이처럼 내면화된 현실인식은 『촛불』 무렵의 「黃昏이 떠날 臨時」』에서 알레고리로 표면화된다. 타자와 주체의 자리가 바뀌는 분기점은 『슬픈牧歌』에 수록됐다가 재판본에서 삭제된 「房」이다. 「房」에서 보여준 초시대적 저항담론은 『슬픈牧歌』 무렵의 「印度의 노래」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내적 저항담론의 동력으로서 작동하고 분노와 혐오의 역설로 드러난다.

『氷河』 무렵의 시집 미수록시는 생존과 이데올로기의 불온한 언술들로 가득하다. 당시는 남·북 대립이 고착화된 시기로 「움직이는 네 肖像畵」, 「네 고향하늘은 南녘 하늘은」에는 젊은 인사로프들의 불온한 사회적 갈망이, 「審判」, 「烽火」, 「네 노랫소리를 들으며」에는 청년화자의 직설적 지향이 드러난다.

『山의 序曲』 무렵의 시집 미수록시는 반독재와 분단극복을 위한 참여시들이 쓰였다. 「4월 革命에 부치는 노래」와 「우리들의 형제를 잊지 말아라」, 「斷食의 노래」는 낭만성을 제거한 현장언어로 이데올로기의 실천태로서 시를 쓰고 있다.

『대바람 소리』 무렵의 시집 미수록시는 상징을 통한 외면화된 현실인식이 드러난다. 「啓示를 기다리기 전에」와 「조용한 忿怒」에서는 시대상황과 만성화된 길항관계에서 상징과 암시를 통한 현실인식이 이루어진다. 「새길」, 「山河는 변할지언정」, 「젊은 얼굴들」, 「極樂과 地獄사이」, 「빛을 謀反하는 低氣壓이」에서는 길항관계를 상쇄하기 위해 상실의 극복과 주체를 강화하는 시적화자가 드러난다.

살펴본 시집 미수록시는 적극적으로 시대를 노래한 작품들이 많다. 시집 미수록시 연구 결과 밝힌 신석정 시의 현실의식은 그를 전원·목가시인으로서가 아닌 치열하게 역사와 민중을 노래한 현실 참여 시인으로 일관되게 평가할 근거가 된다. 초기시 또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목가적 페르소나를 차용했을 뿐 현실도피로서의 목가는 아니었다는 것과 『대바람 소리』를 재평가해야 할 근거를 찾은 것도 의의다.

주제어 : 시집 미수록시. 현실참여, 길항관계, 소년 페르소나, 이데올로기, 억압.

Ⅰ. 서론

신석정은 「기우는 해」[1]를 발표하고 「뜰을 그리며」[2]를 남기기까지 50여 년 동안 시작에 힘썼다. 그는 1939년 『촛불』 발간 후 1974년 『난초잎에 어둠이 내리면』을 발간하기까지 오로지 삶과 시가 하나였던 시인으로 살아왔다. 그는 평생을 교사로 일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를 도구로 삼지 않고 민족의 역사 현실과 부침을 같이 하는 시를 썼다.

그러나 신석정 시세계를 연구하는 데는 일정한 걸림돌이 있었다. 신석정이 '시문학파'였다는 점이 부각돼 유파주의가 먼저 작용했던 것과 신석정의 초기 시세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중·후기시에 대한 연구가 저조해 신석정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애독자가 많았던 『촛불』, 『슬픈牧歌』를 '목가적'이라고 했던 김기림의 평가[3]가 중·후기시 연구에서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 점도 신석정 시세계를 연구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발간된 신석정 전집에 미수록시집[4]도 포함됨으로써 신석정 시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활력을 띠게 되었다. 시집 수록시 330편과 시집 미수록시 290편은 모두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했던 작품들이다. 이 속에서 필자가 주목한 시는 시대상황과 길항관계에 놓인 시편들이다. 당국에 의해 검열 당했거나, 원판본에는 실

1) 『조선일보』, 1924. 11. 24.
2) 『동아일보』, 1974. 7. 8.
3) "현대문명의 잡답을 멀리 피한 곳에 한 개의 「유토피아」를 陰謀하는 목가시인"으로 규정-김기림, 「1933년 시단의 회고」, 『김기림 전집 2 시론』, 수설당, 1988, 63쪽.
4) 『신석정 전집Ⅰ』:『촛불』~『山의 序曲』, 『신석정 전집Ⅱ』:『내 노래하고 싶은 것은』, 미수록시집(이를 편의상 본 논문에서도 '미수록시집'이라 칭한다.), 『신석정 전집Ⅲ』:번역시집, 『신석정전집Ⅳ』:산문1(창작류), 『신석정전집Ⅴ』:산문2(비평류).

려 있지만 재판본에서 삭제 당했거나 수정한 작품, 시인 스스로 검열해 미수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들이다. 길항관계에 놓인 미수록시들을 살피는 일은 발표된 시집 수록시들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초·중·후기시를 사상할 총체적 면모를 밝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개연성을 바탕으로 신석정의 시집 미수록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분석대상을 미수록시로 정한 것은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억압되어 있는 시집 수록시가 담을 수 없었던 현실의식을 미수록시에서 더 잘 포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동안 연구되었던 신석정의 시세계는 크게 네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신석정 시의 기원과 영향 관계를 '자연'에 맞춘 연구와 현실을 수용하고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는 연구, 시의 기법과 형태나 소재에 초점을 맞춘 연구. 시 의식과 주제의 변모 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 들이다. 여기에 "그 자연에는 시대와 현실과 인간의 운명과 삶을 생각하는 시인의 사색하는 빛발이 어려 있다."[5]고 평가한 북한 학자 류 만의 연구도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신석정 연구는 평론과 석·박사 논문을 합해 450여 편에 이른다.[6] 오랫동안 『촛불』에 붙어있던 목가, 전원시인이라는 평가는 『슬픈牧歌』와 『山의 序曲』에 이르러 여러 접근을 시도하게 되지만 여전히 그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초기시에서 목가적 페르소나 뒤에 감춰진 현실의식을 외면하거나 시대상황을 배제한 채 텍스트만을 해석해 신석정 시의 총체적 면모를 제대로 밝힐 수 없었던 것은 그 한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반영의 시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는 주로 중기시에 초점을 맞춰 현실수용과 참여의식을 시의 변모양상을 살피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이는 또한 신석정의 시를 치열한 역사의식과 민중의 소망을 매개로 한 참여시 보는 데 『촛불』에 드러나는 목가적 페르소나를 설명할 수 없고 『대바람 소리』 무렵

5) 허소라 외, 『석정문학 18』, 석정문학회, 2005, 128쪽.
6) 허소라 외. 『석정문학 18』, 위의 책.

의 치열한 시대반영을 설명하기에도 부족하다. 이에 시집 미수록시에 대한 접근은 신석정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할 방향타가 될 것이다.

미수록시를 연구 범위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논의할 것이다. 초기는 『촛불』(1939), 『슬픈牧歌』(1947), 중기는 『氷河』(1956), 후기는 『山의 序曲』(1967), 『대바람 소리』(1970), 『노래하고 싶은 것은』(2007)으로 한다. 이러한 구분은 한국 현대사의 사회 변동과 무관하지 않다. 초기는 1931~1945년 해방까지, 중기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6년까지, 후기는 1960~1974년까지로 정한다.[7] 『슬픈牧歌』는 발표는 해방 후이지만 쓰인 시기가 일제강점기인 것을 감안해 초기시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한 시집 미수록시는 시집 발행 시기에 맞게 현실인식이 반영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으로 구분하고 현실인식이 반영된 작품을 중심으로 미수록된 원인을 유추해 볼 것이다. 일제식민지 상황과 이승만과 박정희 독재 아래에서 발표할 수 없었던 작품은 그 자체로 신석정 시세계의 현실의식을 반영한 작품이다. 시집 미수록시 290여 편은 17세부터 20대 초까지 동아 · 조선 · 중앙일보 등에 발표했던 습작기 시와 해방 후 혼란했던 정국과 4 · 19 등 역사의 격동기에 발표했던 작품, 그리고 지란과 산수를 소요하며 쓴 말년의 작품 170편을 포함한다. 이 미수록시들은 대부분 이미 신문이나 문예지에 발표했던 시들로 시인에 의해 1차적 자기 검증을 거친 작품들이다. 여기에는 시집 미수록시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기 작품 80여 편이 포함되는데 이 때 투고한 시로 신석정이 시문학파로서 활동했던 자취를 살필 수 있다. 중 후기의 미수록시에서는 역사와 현실을 몸으로서 노래한 신석정 시의 현실의식을 조명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7) 『氷河』나 『山의 序曲』, 『대바람 소리』는 한 번씩만 출간되어 훼손이 없지만, 『촛불』과 『슬픈牧歌』는 신석정이 6· 25 직후 가난 때문에 판권을 넘겼고, 1952년 대지사에서 중판된 『슬픈牧歌』는 원본과 크게 달라 초간본을 텍스트로 삼는다.

Ⅱ. 식민지 시기의 우회적 페르소나

1920년대의 문학은 감상적 낭만주의가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탐미주의, 상징주의 같은 서구 사조가 유입되던 시기였다. 이에 자극받은 우리 문단에서는 국민문학파(염상섭, 양주동, 이병기, 정인보 등)가 결성되는 한편 시조부흥운동(최남선, 이병기, 정인보, 이은상 등)도 일어난다. 이들의 활동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새롭게 발견되고 시어의 세련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단의 동향은 신석정을 비롯한 시문학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 그 염소가 웨……」[8]는 신석정이 시문학파에서 활동하기 이전에 쓴 습작기 무렵 작품이다. 식민지 현실에서 그의 신념과 의지가 어떻게 굴절되고 반응하는지 신석정 초기시의 현실의식을 살필 수 있는 미수록시이다.

이 시는 『촛불』로 식민지 현실을 환기하고자 했던 신석정의 의지와 명확하게 일맥상통한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의 형식은 신석정의 수록된 다른 작품들에서처럼 시의 외적형태를 이루는 기능과 함께 어린이다운 순진성에 리얼리티를 제공한다. 신석정이 초기시에서 두르고 있는 어린아이 페르소나의 원형은 이 작품에서 처음 드러났던 배반당한 순진성이 이어진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염소는 묶인 채 자유를 상실한 상태로 울부짖는다. 이는 식민지 현실을 환기하며, 조화로운 이상적 세계를 갈망하는 시인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전원적 염소로써 목가적 음모를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배반당한 유년적 순진성이라는 필요충분조건이 필요했다. 순수한 전원취향의 시까지도 철저하게 그 음모를 적용해야 하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적 방식은 일제강점기에 쓴 『촛불』과 『슬픈牧歌』에서 그의 시세계를 펼치는 주요 방식으로 자리매김한다. 지배와 속박의 강압논리는 평화로운 전원적 풍경 속에서 더욱 대비되고 어린이로 대변되는 시적화자의 외침은 일제강점 아래의 한 국인의 저항정신을 주체화한 것이다. 이처럼 초기시의 역학방식을 결

8) 『동아일보』, 1929. 11. 3.

정하는 대표성을 띠는 이 시가 미수록시로 남아 있는 것은 시대상황과의 길항관계 때문인 것이다.

신석정의 목가적 시는 시인이 살고 있는 현실의식이 내면화된 언술행위이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은 다만 그 반영된 현실이 시에서 '부정의 변증법' 즉, 현실 너머 있는 세계를 그려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독자들에게 그 당면한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유추하게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신석정의 목가적 경향의 시들은 탈현실로 현실을, 슬픔으로 저항을, 이상 세계의 동경으로 일상 삶의 질곡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정의 변증법'을 쓰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신석정의 목가적 경향의 시들이 오히려 현실에 대한 날선 칼, 혹은 현실의식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다.[9] 그리고 이는 알레고리로서 표면화된다.

『촛불』에서 이상향으로 그려지는 전원은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의 자연이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곳을 신석정은 신화적 지향성을 갖는 민족주의적 의식으로 신화화하고 영토화했다. 이는 민족을 본질적인 요소에서 기원하는 초역사적 실체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10]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하늘, 강, 이야기로 연결되는 이상향의 세계는 비극적 현실을 인식한 토대 위에 초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해야 할 생활의 자연이다. 그런데도 많은 연구자들이 『촛불』을 노장사상과 전원귀의라는 명목으로 묶어놓았다. 여기서 신석정이 장자(莊子) 소요유편(逍遙遊篇)에 나오는 허유를 예로 들어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학운야학(閒雲野鶴)을 벗 삼는 지식인을 비판[11]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허위와 명리에 허덕이고 권력에 굶주린 자들에게는 그의 자연귀의가 약이 될 수 있지만 신석정에게 그는 단지 소극적인 생활철학을 지닌 지식인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다.

『촛불』(1939) 무렵에 쓴 미수록시 48편 중 식민지현실을 환기시키는 작품은 「黃昏이 떠날 臨時」이다.[12] 『촛불』에 실린 「이 밤이 너무 길지

9) 오세영, 「현실 인식과 그 부정의 변증법」, 『석정문학 20』, 2007.
10) 박태건, 「신석정 문학의 탈식민성 연구」, 원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9쪽.
11)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전집 Ⅴ』, 국학자료원, 2009, 213쪽.

않습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나는 어둠을 껴안는다」, 「푸른 寢室」,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등은 시적 형상화를 통해서 식민지현실을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작품들이다. 이들 시에서는 알레고리화된 현실의식을 일관되게 읽을 수 있다.

『슬픈牧歌』(1947) 무렵의 미수록시는 21편인데 식민지 시대에 쓴 시를 해방공간에서 엮어낸 만큼 분노와 혐오의 역설적 표현을 제약 없이 담고 있다. 시집에 수록된, 「슬픈 構圖」, 「밤을 지니고」, 「地圖」, 「고흔 心腸」 등은 일제의 검열 때문에 신석정 스스로 발표를 보류했던 작품들이다.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는 당시의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했지만 이들 모두 『슬픈牧歌』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印度의 노래」[13]는 그의 인류적 휴머니즘과 식민지의 대유인 '인도'를 정열적으로 옹호한 점에서는 보편적 감동을 획득하고 있지만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슬픈牧歌』에 수록된 식민 통치국들이 만든 '지도'를 풍자한 시 「地圖」와 친연성이 강하다. 제국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의 세계사적 인식은 「印度의 노래」로 이어진다. 70여 년 전 식민지의 본질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거침없이 표현한 날목소리가 미수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Ⅲ. 남북 이데올로기의 주체적 시대정신

신석정의 중기 미수록시들은 민중과 함께 한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사례로 봐야 한다. 그의 시는 식민지 시대나 해방공간이 아닌 한국전쟁을 전후한 분단시대에 더욱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시대상황과 길항관계 때문에 시집 수록에서 제외된 작품들은 시집에 수록되었으면서

12) 정양, 「신석정의 시집 미수록시 小考」, 『석정문학 22』, 2009, 49쪽. 이하 식민지현실을 환기하는 작품분류는 정양의 견해를 참고한다.

13) 처음 『조선일보』에 2009년 4월 15일에 소개됐다. 이 작품은 신석정이 1942년 3월 6일 밤 병석에서 쓴 미발표작으로 허소라가 발굴해 실었다. 부제는 김기림의 장시집 「氣象圖」에서 인용한 것으로 '넥타이를 한 식인종'이란 약소국들을 식민화하고 있는 열강들을 비판한 것이다.

도 미수록시로 취급되기도 하는 「房」[14]이 대표적이다. 『슬픈牧歌』 초판본에 실려 있던 「房」은 한국전쟁 후 재판본에서는 삭제되었다. 이 시는 식민지 시대에 발표되었고 해방공간에서 수록되었다가 반공을 국시로 삼는 분단시대에 삭제되었다. 이는 일본의 강압적 식민체제에서도 살아남았던 시가 남북이데올로기에 의해 더 철저히 검열 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房」을 쓸 무렵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언론 탄압이 더욱 심해진 때이다. 일본은 민족말살정책으로 조선인 징집령을 발표하고 징병은 물론 징용으로 조선 남녀를 끌어다 군사시설, 군수공장, 국책광업소, 비행장, 항만건설장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조선문단은 이 때 카프가 강제해산되고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이 전면적으로 사라진 즈음이다. 일본이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태평양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조선에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이 강행되던 때로 신석정은 일제의 파시즘에 억압된 민족의 현실과 그 정황을 직시하고 「房」으로 민족의 울분을 언술화했던 것이다. 이처럼 반체제, 반제국주의적인 목소리가 높았던 「房」은 상징의 외피 덕분에 가혹했던 일제의 검열을 피할 수가 있었다. 고도의 '상징'을 통찰하기 쉽지 않는 시적 언술행위의 특징 때문이다.[15] 이런 「房」은 혁명의 거리에 서 투쟁의 의지를 다지려는 혁명가로서의 삶을 노래한다. 「房」이야말로 조선을 뛰어넘어 전 세계 식민지인으로서 저항해야 할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는 시로 소극적인 목소리가 아닌 적극적인 실천태의 목소리로 확장된 실례이다.

신석정은 이처럼 조선의 정세가 안팎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시대를 도피해 자연으로 숨거나 시쓰기를 멈추는 대신 스스로를 단련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초기시에서 두르고 있던 서정적인 목가의 외피마저 과감히 벗어버리고 민중을 대변자로서 촉수를 날카로이 세우고 시대를 노래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은 초기의 『촛불』과 이 시기

14) 『슬픈 牧歌』, 낭주문화사, 1947.
15) 이보영, 「신석정 문학과 외국작가의 영향」, 『석정문학 22』, 2009, 49쪽.

에 쓴 시를 모아 간행한 『슬픈牧歌』에 드러나는 발화가 다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수록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감지되며 이는 갑자기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식민지라는 이데올로기에서 소년이 주체일 때 간접적인 비판의 목소리였다면 중기시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주체가 탄생한 것이다.

신석정이 1947년 4월 『문학』에 발표한 「審判」[16]에서 이미 적과 원수의 구분이 분명해진다. 전조선작가대회에 뒤풀이자리에서 「꽃덤풀」[17]을 낭송하는 신석정은 '시골 변산반도에서 단숨에 서울까지 올라온 36세의 소년'이었다. 「꽃덤풀」에는 시적 파탄이나 단절성이 발견되지 않고 순수 서정성이 조금은 어조가 높게 드러났을 따름[18]이었다. 이는 초기시에 드러나는 소년의 목소리와 말투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은 시적화자의 목소리 때문이다. 그러나 「審判」에 오면 목소리는 청년의 것이다. 산문투의 목소리로 역사를 직시하고 냉철하게 비판하는데 이 때는 직접적 말하기의 방식을 취한다.

「꽃덤풀」과 「審判」과 「烽火」[19]에 등장하는 서정적 목소리를 살펴보면 「꽃덤풀」에서는 소년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다가 「審判」에서는 서정성이 사라지고 건조한 비판자의 목소리만 남는다. 그러다 「烽火」에서는 서정적 목소리가 굵어졌기는 해도 분명 서정의 표정이 걸려 있다. 여기서 「烽火」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 바로 '젊은 놈'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스승쯤으로 보이는 시적화자가 고백하는 것에서 읽을 수 있다. 그의 여윈 손에 '젊은 놈'이 남기고 간 체온 덕분에 얼어붙은 가슴에 봉화가 피어올랐다고 하는 대목으로 '젊은 놈'은 '나'의 분신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젊은 놈이 아니라 시인 자신이 '소년'에서부터 자라온 청년이다.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일찍이 그가 「詩論」[20]에 썼듯 그에게 생활은 곧 시였기에 해방 직후 적극적

16) 『문학』 통권3호 제4권 3호, 1947. 4.
17) 『빙하』, 정음사, 1959.
18) 이보영, 위의 책, 196쪽.
19) 『문장』 속간호, 1948.10.(목차시제「夜火」
20) 시를 쓰는 것은 / 시에서 살려는 마음이어니 / 시에서 살려는 생활을 생활할 때 / 이 붓과 종이에게 輓歌를 보내리다. // 시를 쓰는 것은 / 시와 생활이 멀어진 뒤 일이어니 / 시에서

으로 사회에 참여했던 그의 생활이 곧 그대로 「꽃덤풀」이고 「審判」이며 「烽火」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적화자의 목소리는 신석정의 삶과 함께 변모해왔다. 신석정은 해방 전후 부안의 좌익 지도부에서 활동했다. 특히 조선공산당 중앙단위에서 주도한 3·22 좌익 폭동은 신석정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1950년 인민군이 부안군에 진주했을 때 부안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였고 이후 부안중학교 교장직을 수행[21]한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력은 반공이데올로기가 극심했던 중기시와 후기시 무렵까지 신석정의 시를 외적 내적으로 끊임없이 검열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반공 이데올로기 체제 아래 발표했으나 시집에 싣지 못한 미수록시들에서 신석정의 시대의식이 더 잘 드러나는 까닭은 이처럼 그의 궤적이 유·무형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배경은 미수록시 「地圖」」나 「印度의 노래」에 제국주의를 인식하는 주체적 통찰로 관통한다. 이런 토양에서 출간된 세 번째 시집 『氷河』는 해방을 전후하여 신석정의 사상이 사회적 사실주의로 확장되어가는 지점이 된다.

초기의 목가적인 경향의 시들에서 '부정의 변증법'으로 현실의식을 내면화했던 신석정이 직접 현실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해방기 무렵은 시인 자신의 현실적 행동과도 일치한다. 1956년 발간된 『氷河』에는 「꽃덤풀」을 비롯한 해방공간에서 쓴 작품들과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쓴 작품들이 실려 있다. 신탁통치 찬반투쟁, 4·3항쟁, 여순항쟁, 남한 단독정부수립,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房」이라는 작품의 삭제가 시사하는 것처럼 신석정에게는 식민지시대보다 반공을 국시로 삼

생활하고 생활이 시가 될 때 / 읊어진 옛 노래를 불살라 버리리다. -「詩論」, 1933, 11, 18, 미수록.

또한 신석정은 로망 로랑이 간디의 자서전 프랑스 역 서문에서 '진리는 실험에 쓰이는 우주적인 요소다. 마치 요즈음 캘리포니아의 마이첼손 실험실에서 아인슈타인이 빛을 쓰듯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뒤바꾸어 '생활은 실험에 쓰이는 시적 요소'라고 말하기도 했다.-「가람이병기론」, 『석정문학Ⅴ』, 2009.

21) 박태건, 앞의 글. 신석정은 한국전쟁 직후 18일간 인민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이후 부안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고 한다.

는 해방 이후의 분단시대가 한결 엄혹했다. 『氷河』 무렵의 미수록시 14편 중 「움직이는 네 肖像畵」[22], 「審判」, 「옛 成터에서」[23], 「烽火」 등 4편은 그 내용 이전에 해당 작품에 동원된 '인민', '동무'와 같은 친북성 시어들이 애당초 시집 수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시대를 비판하는 참여시로서 「房」과의 혈연관계가 강하게 느껴진다.

「움직이는 네 肖像畵」에서 등장하는 젊은 화가는 "어떻게 인민을 위하고 인민의 모습을 그려야겠느냐"고 고뇌한다. 이 시적화자는 「네 고향 하늘은 南녘 하늘은」[24]에 등장하는 '철'이의 변형이다. 시적화자는 젊은 화가 철에게 고향 남녘 하늘은 지금 쪽빛 푸른 가을인데도 어둡기만 하다고 안타까워한다. 푸를수록 어둡기만 하다에 드러나는 역설이 고향 하늘이 가을다우면 가을다울수록 어두운 시대현실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첫 행 '9월이 와도, 9월은 와도'로 시적화자와 철이 처한 시대적 상황은 미래와 현재 모두 암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철은 현재 타향에 있다. 1946년은 해방을 맞았지만 극도로 혼란했던 시대이다. 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향은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며, 타향을 떠돌 수밖에 없다. 시적화자 또한 철의 고향에 갈 수 없다. 다만 '로당의 조각처럼' '먼 산기슭에' 서서 철의 고향이 있는 남녘하늘을 '다시 한 번 바라보며 즐겁게 울거나' 하며 슬퍼할 뿐이다. 이 시에는 『氷河』 무렵의 미수록시에 자주 등장하는 '인민'이나 동무' 같은 금기어는 없다. 하지만 초기 남북분단시대이던 당시에는 '남녘 하늘'이란 낱말도 금기시 됐을 법하다. '푸르러도 푸르러도 어둡기만'한 그 '남녘 하늘'이란 말 속에는 그 하늘이 38선 이남의 하늘인지, 4·3 항쟁으로 탄압이 휘몰아치던 제주도쯤의 하늘인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이 어떤 '남녘 하늘'일지언정 해방공간에서 쓰인 '남녘 하늘'은 그 당시로서는 불온한 하늘[25]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22) 『신천지』 13호. 1947. 2.
23) 『학생월보』 제1권 3호. 1947. 8.
24) 『백제』 2호. 1947. 2.
25) 정양, 「신석정의 시집미수록시 小考」, 앞의 책, 56쪽.

Ⅳ. 반독재와 통일을 위한 저항정신

『山의 序曲』(1967)과 『대바람 소리』(1970) 무렵은 『氷河』(1956) 무렵에 비해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 아래 첨예했던 위기의식이 표면적으로 누그러진 상태였다. 4·19 혁명과 5·16 쿠데타를 겪으면서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의식은 성숙해갔다. 시인의 언술행위는 그대로 그 시대의 담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독재 권력의 폭압 아래 페르소나를 차용하거나 자기 검열을 시도하는 등 소극적인 발화로서 기능하는 시집 수록시에서 놓쳤던 것은 적극적인 발화로서 거칠 것 없이 시대의 현실을 노래한 시집 미수록시에서 보이기도 한다.

『山의 序曲』에는 산에 대한 명상이 많다. 수록시 「山은 알고 있다」로 시인이 생각한 산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산은 거대하게 버티고서 내려다보는 산이 아니다. 구석구석 민족의 애환을 들여다보거나 함께 해쳐나가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기능한다. 능선과 골짜기마다 민족의 생생한 삶이 새겨져 있어 산은 민족의 기록자이자, 민족의 애환이며, 기쁨, 전해져야 할 이야기를 들려주는 증언자이다. 또 산은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겪은 화자와 동일시되어 현실의 갈등과 고뇌를 경험하는 대상이다. 마지막 연 '나도 알고 있다 / 네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는 구절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산'이 알고 있는 것을 '나' 또한 안다는 것은 산이 시적 화자로, 또 시적 화자가 산과 동일시되어 역사적 현실을 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석정에게 산은 자연이자 6·25 전쟁을 함께 거친 가족, 이웃이며, 참담한 조국 현실과 동일어다. 이웃을 사랑했던 시인이 가난했던 현실에서 경험한 생활인으로서 증언이 묘사와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비극적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던 『슬픈牧歌』에서 보여줬던 현실인식과 사회의식이 면면히 흘러 연속된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여기에는 조국과 역사, 민족에 대한 시인의 관심이 짙게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이 때 산은 역사의 대유이다.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하는 인간보다 더 믿음직스럽다. 또한 산은 그대로 현실을 응시하며 시대를 증언하는 역사의 현장이자 모든 부정적인 세력에 대한 거부와 비판의

원천이다.

이런 큰 맥락을 전제로 『山의 序曲』은 〈山의 序曲〉, 〈斷腸小曲〉, 〈靈柩車의 歷史〉, 〈羈旅詩抄〉 네 부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靈柩車의 歷史〉는 시대현실을 노래한 작품들이 주로 실려 있다. 이 무렵의 미수록시는 43편인데, 그 중 시대적 상황과의 길항관계 때문에 시집 수록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은 「4월 革命에 부치는 노래」[26]. 「우리들의 형제를 잊지 말아라」[27], 「斷食의 노래」[28], 「봄을 잊을 수는 없다」[29], 「無明에의 抗辭」[30], 「그렇다면 몰라도」[31], 「봄은 있다」[32], 「오랜 시간이 우리들의 뒤로 물러간 뒤」[33], 「宿題」[34], 「四月의 노래」[35], 「黎明卽前」[36], 「門밖엔 봄이 있다」[37], 「風葬地帶」[38], 「헐벗은 山河에 살아도」[39] 등 14편이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대상으로 4·19의 열기를 열정적으로 토로한 「4월 革命에 부치는 노래」와 「우리들의 형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삼엄했던 군부독재의 야만에 맞서 치열하게 항거했던 「斷食의 노래」 등이 『山의 序曲』 무렵의 미수록시들 중에서 시대적 상황과의 치열한 길항관계가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이승만 독재는 6·25 전쟁 중 사회주의와 연관된 행적이 있었던 신석정에게 운신의 폭이 없는 절벽과 같은 시대였다.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를 재건한다는 국가의 대의에 우리 민족은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 그 희생의 명분이 때로는 정치적 안정이었고, 때로는 조국의 근대화 사업이었다. 이는 권력을 쥔 세력들이 국민을 호도하는 독재의 명분이

---

26) 『전북대학교보』, 1960. 5. 9.
27) 『전북대학교보』, 1960. 6. 15.
28) 『서울일일신문』, 1960, 10.
29) 『전북대학교보』, 제84호, 1961. 1. 16.
30) 『전북대학교보』, 1962. 1. 1.
31) 『전북일보』, 1963. 8. 8.
32) 『삼남일보』, 1964. 1. 1.
33) 『전북일보』, 1964. 1. 29.
34) 『한양』, 28호. 1964. 6.
35) 『문학춘추』, 제2권 4호. 1965. 4.
36) 『전북일보』, 1966. 1. 1.
37) 『경향신문』, 1966. 5. 2.
38) 『時神』, 1집, 1967. 2.
39) 『전북일보』, 1967. 3. 12.

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서 1960년대 시문학은 반독재와 분단 극복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신동엽, 김수영 등이 참여시 운동을 벌여나간다. 이 때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았던 신석정은 김수영보다 더 날선 목소리로 「쥐구멍에 햇볕을 보내는 民主主義의 노래」[40]와 같은 4·19의 저항의식을 분출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이후 장 면 정권이 들어서고 나라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으로 들끓을 때 기존 교원단체를 거부하고 관변단체와 맞서는 '교원노조'가 조직된다. 이 때 신석정은 「서울일일신문」에 교원노조를 적극 지지하는 시, 「斷食의 노래」를 기고한다. 뒤이어 1961년 「다가온 春窮」[41]을 발표하는데 당시 이 신문은 혁신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신석정은 이 두 시가 빌미가 돼 전주경찰서에 수감된다.[42] 결국 잘 다니던 직장에서마저 쫓겨나는데 시인으로서 시대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시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山의 序曲』은 신석정의 회갑기념 시집이다. 이 시집으로 평생의 시업(詩業)을 결산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신석정은 여느 시집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수록될 시를 가려 뽑았을 것이다. 시적 완성도는 물론 시의 사회적 역사적 통찰기능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초시대·초이념적 엄격함이었을 것이다. 또한 4·19를 전후한 열정과 분노들이 시대적 위기의식이 만성화된 『山의 序曲』을 엮을 무렵에 이르러서는 신석정에게 오히려 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위에 제시한 14편의 미수록시들은 시대를 노래한 작품이지만 역사 속에서 부활할 작품의 시대성을 노렸던 시인의 판단이 작용된 결과미수록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바람 소리』(1970)는 그 당시 박목월 한국 시인협회장이 영부인 육영수의 지원을 받아 시리즈로 낸 시선집이다.[43] 신석정은 시집을 출

40) 『산의 序曲』, 가림출판사, 1967.
41) 『민족일보』, 1961. 4. 4.
42) 허소라, 「신석정 문학을 재점검한다」, 『석정문학 22』, 2009.
43) "박 회장은 되는 대로 원고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다. 하는 수 없이 여고교지

간할 때 오랜 기간 수록할 작품을 선별하고 그것을 순서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데 긴 시간을 들인다. 그런데 『대바람 소리』는 군부정권의 자금으로 급하게 출간한 시집이며, 그 또한 박목월의 청을 거절치 못해 궁여지책으로 모은 작품도 끼여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치열하게 현실을 노래했던 『山의 序曲』을 발간 후 3년 뒤에 나온 『대바람 소리』는 다른 시집출간이 10여 년을 두고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면 그 숙고의 기간이 짧다. 또한 시집에 실린 시들에 담긴 목소리 또한 대부분이 자연관조의 세계로 일관한다. 그 중에 현실의식이 드러난 시 세 편 「대바람 소리」, 「서울 1969년 5월 어느 날」, 「저 無等 같이」는 『山의 序曲』에 실린 현실의식이 느껴지는 시들과는 다르다. 다른 미수록시들에서 보였던 확고한 의지는 서정을 빌려 곡선을 빌리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대바람 소리』 무렵의 미수록시 46편 중 「啓示를 기다리기 전에」[44], 「새 길」[45], 「젊은 얼굴들」[46], 「極樂과 地獄사이」[47], 「山河는 변할지언정」[48], 「그날이 오면」[49], 「神話」[50]. 「빛을 謀叛하는 低氣壓이」[51] 등 8편은 어느 시기보다도 시대적 갈등상황에 밀려 수록되지 못한 만큼 신석정 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한다.

『대바람 소리』에 실려 있는 「서울 1969년 5월 어느 날」은 엄혹한 감시와 통제의 시대에 맞서 신석정이 용기 있게 발언한 1967년 월남파병을 비판한 시 「꿈의 일부」[52] 때문에 남산의 정보기관에 끌려가

에 실린 작품까지 모아 부랴부랴 보내게 되니 이가 곧 23편으로 짜여진 제 5시집 『대바람 소리』이다."–허형석, 「신석정의 '대바람 소리'전후」, 『석정문학 19』, 2006, 42~43쪽.

44) 『영생대학보』, 1968. 2. 5.

45) 『새길(백산중)』,1969. 2.

46) 『전북대학신문』, 1970. 3. 17.

47) 『현대시학』, 제2권7호, 1970. 7. 신석정이 제6시집 간행을 염두에 두고 『밀림대』에 실었던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는 미수록시로서 어두운 시대현실에 대응하려는 전형적인 신석정 후기 시의 모습이 드러난다.

48) 『전북일보』, 1969. 10. 10.

49) 『승공신문』, 1970. 8.

50) 『농민문화』, 1970. 8.

51) 『월간문학』, 1970. 12.

52) 『신동아』, 1967. 2. 이는 165년 남정현이 『분지』 발표 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에

신문을 받고 쓴 시이다. 후에 신석정은 『대바람 소리』에 실린 이 작품을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했는데[53] 그 당시 미수록시와 시대인식을 함께 한다. 「저 無等 같이」에서는 '전진을 단념한 역사가 있어 / 齒車를 뒤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신화를 예로 들며 시인 세대에 통일을 이루어야한다고 선언한다. 이 배후에는 남북분단이 '전진을 단념'하기 위해 '齒車를 뒤로' 돌리는 슬픈 신화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반공이 국시인 시대상황에서 이 두 시가 자연관조의 시들 속에 섞여 있는 것은 시인의 고백대로 '위장취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바람 소리』 당시 미수록시에서는 이런 '위장취업'의 가면을 철저히 벗고 있다.

「山河는 변할지언정」, 「젊은 얼굴들」 일부, 「極樂과 地獄사이」같은 후기 시는 만성화된 독재체제에서 시인의 목소리는 시대적 길항관계의 상쇄가 느껴진다. 「極樂과 地獄사이」에서 우리의 의지나 경험방식에 따라 지옥이 극락이 되고 극락이 다시 지옥으로 역전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지는 서정시의 주체를 더욱 굳건히 내세우게 되며 주체는 극락 속에 있든 지옥 속에 있든,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봄 아닌 봄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날이 오면」, 「神話」, 「빛을 謀反하는 低氣壓이」 시들에서는 어둠 속에서 새벽을, 혹독한 겨울 속에서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다 지친 쓰라림과, 그럼에도 그 새벽과 봄날들을 더 끈질기게 기다려야 한다는 역사적 비장함이 구절마다 묻어 있다. 그러나 군부독재의 장기화와 시대적 위기의식의 만성화 속에서 체념적으로 엮어진 『대바람 소리』에는 쓰라리고 비장한 현실을 노래한 위의 시들이 망설임 없이 시집 수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군부정권의 수혜를 입고 발간한 시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집출간 배경과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집에 수록된

서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의 발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53) "시인은 교정을 보고 있는 필자에게 『대바람 소리』를 가리켜 숨 막히게 옥죄어 오는 당국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잠시 위장취업을 하는 거야.' 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하였다."-허형석, 앞의 책, 50쪽.

텍스트만으로 『대바람 소리』 무렵의 시를 “친근한 자연에 복귀하려는 자연관조의 세계를 보여주는 시기”라고만 평가하거나[54] “대나무와 같이 꺾이지 않는 지조의 정신과 태산목과 같은 의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신석정 시의 대표적인 업적[55]이라고 하는 것은 신석정 시의 언술 행위 이면에 억압된 이데올로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Ⅵ. 결 론

한 작품의 시대성이란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시대성을 의미하거나 작품이 스스로의 언어로써 창작해내는 시대성을 의미한다. 문학작품은 이 둘 중 작품의 시대성에 더 민감해야 한다. 이렇게 작품의 시대성을 획득한 작품은 언제나 과거의 것인 동시에 오늘의 것이 될 수 있다. 현전하는 과거로 현재를 노래하게 된다. “역사적 감각이란 과거의 과거성만이 아니라 과거의 현재성에 관한 것이다.”라는 엘리엇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문학작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작품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 시인의 문학사적 위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흐름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따라 순수 서정시가 높게 평가받기도 하며 현실 참여시만이 당위성을 얻기도 한다. 또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신석정을 평가하는 작업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한 시인을 문학사적으로 평가할 때는 시인이 작품 활동을 했던 어느 특정 시기의 작품에 한정하거나 시집에 수록된 작품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 그 시인의 전 시기 작품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필요하다면 시집에 수록돼 발표된 작품뿐만이 아닌 미수록된 작품에까

54) 신용협, 최승범, 국효문, 강희안 등.
55) 윤여탁, 『자연과 생활을 노래한 목가 시인 신석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42쪽.

지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식민지와 독재로 얼룩진 우리의 현대사를 감안한다면 이데올로기에 억압돼 미수록된 작품을 살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뒤라야 좀 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신석정의 초기시 무렵의 시집『촛불』,『슬픈牧歌』에 국한된 연구가 그의 전원적, 목가적 면모만을 평가했다면, 중기시 무렵의 시집『氷河』와 후기 시집『山의 序曲』만 살핀다면 날카로운 현실참여적인 목소리만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신석정의 시정신은 그의 시론과 미수록시에서 확인되듯 평생을 잇고 있다. 그는 생활인으로 시를 쓰고 시 속에서 생활을 했다. 생활에서 시를 찾을 때는 목가시인으로, 시에서 생활을 찾을 때는 투사적인 참여시인으로 살아 그의 생활과 시는 하나였다. 그가『논어』의 한 구절인 '君君, 臣臣, 父父, 子子'를 들어 시인은 시인다워야 한다고 했던 것은 자신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시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이데올로기에 의한 주체로 당당히 선 시인의 역할이야말로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시정신이라는 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살펴본 대로 신석정의 초·중·후기의 미수록시들에 일관되게 현실참여의식은 관통한다. 하지만 시대에 부딪힐 때는 페르소나를 차용하거나 수록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현실에 대응해 왔다. 신석정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4·19와, 독재정권을 모두 거치며 그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운명하는 순간까지 치열하게 시를 썼다. 유고시집을 포함한 7권은 우리 시문학사에서 한 시인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며 변모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시집에 미수록된 작품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현실참여의식을 확인한 것은 그동안 초기시에 드러난 전원, 목가시인으로서의 페르소나가 신석정 시의 본질이 아니라 그가 시대에 응전하기 위해 써야했던 가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석정 시집 미수록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미수록시 연구를 시도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이번 연구로 그동안 목가시인에 가려 드러나지 못했던 신석정 시의 현실의식을 일관되게 포착할 수 있었다. 시기별로 시대상황과 길항관계에 있는 미수록시들이 신석정 시의 현실

의식을 총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준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촛불』과 『슬픈牧歌』 무렵의 미수록시를 통해 초기시 또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페르소나가 필요했을 뿐 현실도피로서의 목가는 아니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제5시집 무렵 미수록시에 드러나는 현실인식을 통해 자연귀의로 일방적 평가를 받고 있는 『대바람소리』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미수록시 연구는 그동안 전원·목가시인으로 더 잘 알려진 신석정의 페르소나를 해석하고, 그는 목가시인이 아니라 치열하게 역사와 민중을 노래한 현실 참여 시인이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신석정, 『촛불』, 인문사, 1939.
_____, 『슬픈 목가』, 낭주문화사, 1947.
_____, 『빙하』, 정음사, 1959.
_____, 『산의 서곡』, 가림출판사, 1967.
_____, 『대바람 소리』, 문원사, 1970.
_____, 『난초잎에 어둠이 내리면』, 지식산업사, 1974.
_____, 『내 노래하고 싶은 것은』, 창작과 비평, 2007.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전집』Ⅰ~ Ⅴ, 국학자료원, 2009.

단행본

김기림, 「시론」, 『김기림 전집 2』, 수설당, 1988.
김용직, 『한국 현대 시사 연구』, 일지사, 1974.
김윤식, 「댓이파리, 바람소리, 슬픈 초승달의 표상」, 『시문학』, 1978.
신석정시인 30주기추모문학제전위원회, 『신석정 30주기추모문집』, 2004.

논문

강희안, 「서정시의 공간과 현실응전의 현상학」,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국효문, 「신석정 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박태건, 「신석정 문학의 탈식민성 연구」, 원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오세영, 「현실 인식과 그 부정의 변증법」, 『석정문학 20』, 2007.
오택근, 「신석정 시 연구-초기 시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윤여탁, 『자연과 생활을 노래한 목가 시인 신석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이보영, 「신석정 문학과 외국작가의 영향」, 『석정문학 22』, 2009.
정　양, 「신석정의 시집미수록시 小考」, 『석정문학 22』, 2009.
허소라, 「신석정 문학을 재점검한다」, 『석정문학 22』, 2009.
_____, 「신석정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_____, 『임께서 부르시면』, 유림사, 1987.

외국 단행본

푸코, 미셸,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출판, 2003.
알튀세르, 루이,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권은미 역, 이매진, 2010.
이스톱, 앤터니, 『시와 담론』, 박인기 역, 지식산업사,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Reality in Shin, Seok-jeong's Poems

-Focusing on the Unpublished Poetry

Choi, Ho-jin

Shin, Seokjeong has left 6 published books of poetry in the chaos of modern Korean history starting with the "Setting Sun" in 1924 and "Thinking of the Garden" in 1974 posthumously. The publication of *Shin, Seokjeong Anthology* in 2009, which included the previously unpublished poetry broadened the horizon.

To evaluate his poetry by focusing in the earlier poems as "pastoral" is overlooking the poetic spirit that was charged with persona of the real world. The studies on the unpublished poems of Shin, Seokjeong allow us to read the contemporary spirit of the poet behind the speech revealed in suppression of "invisible rules and regulations." The earlier poems with pastoral utopia and the later poetry with active contemporary events both show a consistent spirit of reality.

The unpublished 290 poem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330 poems listed in the anthology are important in viewing the general light on the poetic world of Shin, Seokjeong. Therefore, I focused on the poems that were censored from the conflicts with the contemporary issues or have been

self-censored. This is from a decision that the excluded and silenced poems would show the poet's spirit even better.

The poetic object in the earlier days of "Mother! Why the Goat is…" is a subject that is pastoral and also the one that reminds us of the conquered era. With this poem, he discovers the purity of the boy as a crucial condition of a pastoral song and adds the pastoral tone to the other earlier works. The internalized spirit of reality is also expressed with the allegory in the "Moment臨時 Twilight黃昏 Leaves" at the era of *Candlelight*. The transition of changing the others and the subjects is the "Room房" that was published in *Pastoral Song*牧歌 in *Sorrowful* and was deleted later in its second edition. The unceasing resistance works as both the drive of resistance discourse and the logic of anger/disgust are revealed in "Song of India印度" at the time of *Pastoral song*.

The unpublished poems during the *Iceberg*氷河 era are filled with survival issues and ideological statements. At the time, the North and South Korea conflict has been solidified, and then the "Portrait肖像畵," "Southern南 Sky" show the unhealthy social desires of the young ideologists and the "Judgment審判," "Signaling Fire烽火," "Listening to your Singing" show the direct orientations of the young narrators.

The unpublished poems at the times of *Prelude*序曲 *to the Mountain*山 were the participatory poems for the anti-dictatorship and overcoming the split. The "April, a Song for Revolution革命," "Don't Forget Our Brothers," "Fasting斷食" are written by the real/vivid language with the ideological actions without the romanticism.

The unpublished poems during the period *Bamboo Sounds* show the externalized spirit of reality through symbolism. The "Before Revelation啓示" and "Silent Fury忿怒" show his spirit

through symbolism and implications related in the historical situations. The “New Road”, “Though Mountains and Rivers山河 always change,” “Young Faces,” “Between Heaven極樂 and Hell 地獄,” “the Low Pressure低氣壓 Against謀反 the Light” show the poetic narrators who strengthen the overcoming of the loss and the subject to cancel out the causal relationship.

The examined unpublished poems often sing of the active contemporary discourse as his ideological practice. Therefore, the simple and stereotypical poetic words and descriptions in his poems may not gain the empathy of the readers. Despite the limitations, the meaning of the unpublished is large. They are the witnesses of the modern Korean history and also become the consistent references for th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reality in Shin, Seokjeong's poems that inherit the traditional literary language and the political resistance spirit that have not been in any other generations. In brief, the consciousness of reality in Shin, Seokjeong’s poems will be the basis to consistently evaluate him as a fierce participatory poet who sang the history and the people, rather than just a pastoral poet. Only to overcome the reality of Japanese Colonization, he used the pastoral persona without the sense of avoiding the reality, which gives us a basis to reevaluate the Bamboo Sounds.